✝ 묵주기도

환희의 신비 (월·토)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5단 마리아께서 잃으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빛의 신비 (목)

1단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을 묵상합시다.
2단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4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5단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고통의 신비 (화·금)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영광의 신비 (수·일)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 묵주의 기도를 할 때 암송하는 기도문

사도신경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밑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 아멘.

주님의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 아멘

성모송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 아멘.

영광송

(밑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이며)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 아멘.

구원을 비는 기도(구원송)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성모찬송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묵주기도 바치는 방법

1. 묵주에 달린 십자가를 잡은 채 **십자성호(성호경)**를 이마, 가슴, 양 어깨 순으로 긋고 십자가 발 부분에 **친구(입맞춤)**한 다음, **사도신경**을 바칩니다.

2. 큰 알(또는 간격이 넓은 알)에서 **주님의 기도** 1번, 작은 알 3개에서 **성모송** 각 1번씩, 그리고 맨 마지막 알에서 **영광송**을 바칩니다. 이어서 **구원을 위한 기도(구원송)**를 바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신비 제1단**(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묵상**한 후 **주님의 기도**를 1번 드립니다.

4. 이어서 다음의 작은 묵주 알에서 각각 1번씩 **성모송** 10번을 바칩니다.

5. 10개의 작은 묵주 알을 지나 하나의 큰 묵주 알(또는 간격이 넓은 알)에서 **영광송**을 바칩니다. 이어서 **구원을 위한 기도(구원송)**를 바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과 같이 **신비 제2단**을 **묵상**한 후 **주님의 기도**를 1번 드립니다.

6. 이와 같이 매 단마다 그 신비를 묵상하면서 제3단, 제4단, 제5단을 계속 바칩니다.

7. 마지막 제5단의 묵주기도가 끝나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돌아온 십자가를 잡고 **성호경**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때 십자가에 **친구(입맞춤)**하며 마칠 수 있습니다.

8. 마침 성호경을 하기 전에 묵주기도성월 기도인 **성모찬송**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장발 화백의 '칠락의 묵주기도 성모' 88 x 128cm 유화 1963년

장발(루도비코) 화백 (1901 ~ 2001)

이 작품은 예수 잉태부터 승천에 이르는 성모 마리아의 일곱 가지 기쁨을 되새기는 프란치스칸 고유의 묵주기도를 표현했다.

칠락 묵주기도는 1442년 성모께서 작은 형제회 한 수련자에게 성모로서 누린 일곱 가지 기쁨을 일러주고 "성모송으로 화관을 엮으라"고 한 데서 연유한다.

장 화백은 하늘에 올라 천상 모후의 면류관을 쓴 성모 마리아(제7락)를 가운데에 두고 예수 잉태, 엘리사벳 방문, 출산, 부활한 예수를 만남 등 나머지 기쁨의 순간을 좌우 양측에 형상화했다.

[주요 작품 등]

- '김대건 신부' (유화 반신상, 1920년, 현존하는 국내 첫 성화. 서울대교구 소장)
- '복녀 골룸바와 아녜스 치명' (1940년,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평양 서포 수도원)
- '성령강림' (1928년, 평양교구 신의주성당 벽화)
- '예수성심상' (1935년, 비현본당)
-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는 (1941년, 서울 가르멜수녀원)
- '예수탄생예고(성모영보)' (1945년, 서울 가르멜수도원 제단화)
- **서울 혜화동성당 신축 공사** 설계와 조각 제작 등 총지휘(1960년)
- '칠락의 묵주기도 성모' (1963년, 유화, 서울정동작은형제회수도원 역사박물관소장)

* 자료 출처 : 가톨릭평화신문, 제1114호 2011년 4월24일
[기획/재속 프란치스칸들 시리즈]-<9> 우석 장발(루도비코) 화백